



## 전통사찰 관리 기술 '경악'

### 대구 대성사 10년 전 철거 신축

대구 중구 유일의 전통사찰인 대성사가 철거·신축된 사실이 10여년이 지나서야 밝혀져 전통사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영천 은해사 말사인 대구 대성사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인 광문사터이다. 1993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라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평가돼 전통사찰로 지정됐지만 2002년 철거·신축됐다. 전통사찰이 철거된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2007년 국채보상운동 기념비가 세워지는 동안에 대구시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

전통사찰보존법 등 현행 법규상 화재 등으로 전통사찰이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될 때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 지정을 해제한 후 철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성사는 은해사 측에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철거했다.

이에 대해 은해사 측은 "당시 건물이 심하게 노후돼 관리가 안 될 지경에 이르러 철거시킨 것으로 안다. 특히 (공구상가가 위치한) 주변 환경 때문에 철거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전통건물 양식의 대성사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철거했다는 은해사측 해명은 억지"라면서 "건지동 조계사를 비롯해 승인동 청룡사 등 도심 전통사찰 중 현

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물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전통사찰을 훼손해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느슨한 처벌 조항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구 중구청 문화관광과 허동정 주임은 "(전통사찰이라 해도) 소유자가 정리한 것을 법적으로 강제 조치할 방법이 없다. 관계법에도 과태료 처분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문화계는 "그나마 전통사찰이나 때서 과태료 처분 조항이라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문화유산위원장은 "근대 등록문화재인 서울시청이 2008년 백주대낮에 철거된 사례만 봐도 문화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며 "이번 대성사 사건은 전통사찰이 문화재관리의 사각지대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은해사를 비롯해 관계기관 등에 모든 책임이 있지만 이제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대성사를 불법하게 장엄하고, 대구시와 협의해 인근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일보 등 지역 언론들도 대성사 사건은 사찰의 전통사찰 관리 마인드 부재와 관계당국의 책임회피식 떠넘기기 행정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대성사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교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성사 사건을 전통사찰 등 문화재 전수조사로 계기로 삼아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오로지 한 마음으로...

불기 2553년 기축년 동안계 해제일이 2월 28일 2244명(비구 1196명, 비구니 844명, 총림 204명) 대중은 전국 97개 선원(총림 5곳, 비구선원 59곳, 비구니선원 33곳)에서 한철을 나고 새로운 만행길에 올랐다. 사진은 동안계 해제를 앞두고 25일 충남 계룡 국제선원 무상사(주지 대진)에 방부를 들었던 스님과 내·외국인 재가불자 70여 명이 석 달 동안의 수행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박재원 기자

## 승려재산령 올 하반기 시행

### 조계종 "3월 임시총회서 법령 개정해 9월 하안거부터 실시"

종단에 유언장을 내고 사후 사유재산을 종단에 출연하기로 하는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법' (이하 승려재산법) 시행이 올 하반기로 늦춰졌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2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임시총회에서 법령을 개정해 9월 하안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개정의사를 밝힌 것은 시행에 앞서 종단 안팎의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당초 총무원장은 3월 1일 시작되는 분한신교에서 유언장 등을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관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종단에 귀속된다"고 명시한 승려법 규정을 두고 문종 등 종단구성원의 거부감이 표출되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무원장은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까지 교구 분·발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3월 분한신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유언장이 접수된다.

주무부장인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스님들의 사유재산이 세속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일부 스님들이 종단 출연 부분에 오해하고 있다"며 "종단

에 귀속한다는 것을 종단 및 소속 본사, 본인이 주지하고 있는 사찰, 문종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개정안 발표 시 현실적으로 종단 출연이 줄어들 경우 승가공동체 공동기금 마련 및 제단 설립의 실현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 방침에 대해 본 취지를 잃지 않기 위해 집행부가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 알림

## 새봄, 감성 일깨우는 새 연재 현대불교신문이 산뜻하게 다가갑니다

현대불교신문이 3월 새봄을 맞아 산뜻한 분위기의 편집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새 연재물로 독자 여러분의 신심을 북돋고 감성을 자극할 것입니다.



### 만화, 요절복통 여래네 집

세상을 살짝 비틀어보면 평소에는 몰랐던 장면들이 뒤뚱뒤뚱 걸어나옵니다. 여래네 집은 바로 나의 집입니다. 만화적 감성으로 그려낸 희노애락이 바로 화두이며, 일상에서 마주치는 일곱들이 부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 최연의 산 이야기

산은 산 이상의 무엇입니다. 사람살이를 보듬어주는 터전이며, 고향을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또한 사찰이 그곳에 있으니 부처를 이루는 도량입니다. 이 계곡과 저 강 사이에 저며 있는 이야기를 통해 사람과 산과 불교의 조화로운 관계를 묻습니다.



### 유송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강원도 영월 망경대산. 첨단이 아니고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지금에도 소를 몰아 밭갈이하는 유송길은 산입니다.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사는 이만이 전해줄 수 있는 느릿느릿한 웅얼거림이 무디어진 감성의 속살을 간지럽혀 줄 것입니다.



### 서동석의 가슴으로 만난 그 곳-월1회

발 내딛는 곳마다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네 삶을 크게 요동치게 했던 산은 여전히 우뚝하고 물은 하향합니다.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되뇌어야 비로소 풀이되고 거름이 됩니다. 혹시 그곳을 지나치다 잠깐 잔잔한 눈길로 보아주면 됩니다.

# 나를 부러워 시작

인생이란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과정이다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기간 2010. 3. 27(토)~6. 26(토)

일시 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 4:30~8:10 한마음선원

참가 자격 불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체득해 나가고자 하는 모든 분

모집기한 2010. 3. 13(토)

문의 TEL (031)471-6926-7 FAX (031)471-6928

경기도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www.hansol.org

매주 월요일은 휴무

저제한교육과정 및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 東大 약학대 20명 정원 배정

28년 만의 약학대학 정원 증원에 서울 동국대가 선정돼 20명 정원을 배정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월 26일 "2011학년도 약대 신설 및 정원 배정 최종심사에서 1차 심사에 통과한 19개 대학 중 15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동국대가 약학대 신설 대학에 선

정했다는 소식에 조계종은 "동국대의 약학대 선정은 종단과 동국대가 함께 이룬 성과"라며 환영 논평을 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교과부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동국대가 약대를 유지한 것을 2000만 불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신계사 성지순례 3월 실무접촉

조계종이 3월 초 심양에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 실무접촉을 갖고 신계사 성지순례를 계속 추진한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혜경)는 2월 22일 브리핑을 열고, 남북불교계의 실무접촉 무산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사회부 관계자는 "18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7일 저녁 통일부에서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 지원의 책무를 지닌 통일부의 이번 입장이 어렵다. 통일부에서 신계사 성지순례 자체

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시점에 대해 난색을 표한 만큼 성지순례를 지속 추진할 계획"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번 통일부 방침과 별개로 신계사 성지순례와 5월 부처님오신날 남북합동법회 등을 진행하기 위해 3월 경 심양에서 조불련과 회담을 갖고 포괄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THE YEONGSANJAE CEREMONY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G-20 정상회의 2010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영산재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2010. 3. 11 (목) 오후 2시

주관 : 2010영산재 봉행위원회,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주최 :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

**초대의 글**

불, 법, 승 삼보전에 귀의하고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지절에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에서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2010영산재'를 병행합니다.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의 국제적인 회의이고 단군 이래 최고의 경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 자격에서 주최국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영실공히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운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태고종의 총본산 봉원사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관리하는 '영산재'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2010영산재'는 우리나라 불교문화예술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법요이오니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2010년 2월  
2010영산재봉행위원회장 박인공 합장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전국신도회장 인사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새 봄을 맞이하는 날,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전국신도회장 유윤순' 인사 올립니다.  
부처님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2010영산재'를 주축하게 되었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유치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우뚝 서게 되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운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서로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장 유윤순 합장

2010영산재봉행위원회(02-739-3450),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02-392-3007), 태고종전국신도회(02-720-3133)